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결산

발전 방향과 과제

디자인 점목, 지역산업 살찌워라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광주를 상징하는 '빛'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산업화 가능성을 얻었...

행사 위한 행사 그만... 산업화 연계 해야

원하는 광주디자인센터는 전시 기간 동안 사실상 '관객'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명주 조선대 미대학장(디자인학부)은 "현재 광주디자인센터가 인력이나 구조면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창설 취지에 걸맞는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화운을 위한 재원·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시비 20

억, 국비 20억, 광주비엔날레 재단 자체 출연 10억원 등 모두 50억원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디자인의 산업화에 대한 노후나 인력이 없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2회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지역 디자인산업,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지 못하는 등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행사 개최 장소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자체 전시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굳이 4억원의 임대료를 내고 2회째 김대중센터에서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전적으로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지역의 디자인을 개발·지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전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와 동시에 지역 산업과의 연계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겼다. 지난 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폐막공연 행사.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덴마크 인텍스사와 결연 추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국제적인 디자인 재단인 인텍스사의 자매결연이 추진된다.

4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덴마크 왕실과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인 인텍스사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교류협력을 위해 양 기관의 자매결연을 제안했다.

크를 갖고 있는 디자인계의 대표적인 단체로 양 기관이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해외에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인텍스사는 올 디자인비엔날레 본 전시에 생활디자인 제품 국제공모전인 '인텍스 어워드' 수상작 수십 여점을 출품했다.



디자인비엔날레 그 후

"디자인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임하라(Design, or resign.)"

지난 1979년 영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총리에 오른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던진 일성(一聲)이다. 당시 영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끊이지 않는 노사분규로 회복불능 상태였다. 취임 초기 '만성적인 영국 병을 치유하겠다'고 부르던 그녀였지만 패배주의에 젖은 각료를 때문에 적응은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마침내 대처는 '영국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며 초강수 혁신 카드를 내밀었다. 바로 디자인 정책이다. 대처 정부는 '기업이건 개인이건 디자인을 중심으로 미래를 새롭게 구성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디자인을 창조적 산업의 원천으로 삼은 영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집중투자했다. 4천여 개의 디자인 회사가 2005년에만 벌어들인 매출이 46억 파운드(약 8조 원)나 될 만큼 디자인은 영국 산업의 성장동력이다.

2007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기간이었던 지난달 20일, 국제 산업디자인 단체 총연합회(ICSID·회장 피터 맥)는 서울을 2010년도 세계디자인 수도로 지정·발표했다. 세계 디자인 수도는 "디자인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피터 맥 회장이 창안한 제도. 서울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세계디자인 수도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ICSID 총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또 서울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할 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올해에는 서울 이외에 싱가포르, 두바이 등 20개 도시가 각축을 벌였다. 서울시는 부시장이 이끄는 디자인 서울총괄본부 신설과 디자인 산업 지원을 위한 '월드 디자인플라자' 건립이 좋은 평가를 받아 낙점했다.

이번 서울시의 세계디자인 수도 선정은 광주 사람들에게 쓸쓸한 뒷맛을 남긴다. 지난 2005년 디자인 비엔날레 창설을 계기로 세계 디자인 발전으로 거듭나려는 광주시를 머쓱해 했기 때문이다. 이번 세계디자인 수도선정에 대규모 디자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도시가 유치경쟁에 나선 것과 달리 광주시는 이런 사실조차 몰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주시는 21세기 디자인 산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디자인 비엔날레 외에는 이렇다할 후속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회 대회를 치른 디자인 비엔날레 역시 국제적인 파급효과는 안팎속이다. 지난 2005년 광주시는 "왜 광주가 디자인 비엔날레까지 챙기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아시아 문화수도과 광주비엔날레 개최도시라는 배경을 내세워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디자인비엔날레가 곧 '디자인 도시 광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춤으로 풀어 본 세가지 '삶의 환희'

임지형 광주현대무용단 문예회관 화요일예술무대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이 6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화요일예술무대에 오른다.

'일륜(一輪)'이라는 주제로 모두 3장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는 세 명의 안무가가 같은 주제로 각기 개성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일륜-다시 이렇게'의 안무를 맡은 백난희씨는 새롭고 탄생한 생명의 환희를 묘사하고 있으며 '일륜-여기 이

렇게'를 안무한 김미선씨는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의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그렸다. 또 김미선씨는 '일륜-또 다시 이렇게'에서 수레바퀴가 돌 듯 또 다시 윤회하는 삶의 환희를 이야기하고 있다.

재혼화·성지현·임소영·홍기준·김슬기·선빛나·윤석영·김해주·최미나 씨 등이 출연한다.

지난 1986년 창단된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은 제 12회, 14회 전국무용제에서 대상 및 안무상 연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문의 062-230-7423. /김미선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 본고장에 한국 판화 알린다

우제길 미술관 佛서 교류전

매년 해외 교류전을 통해 국제적인 판화 흐름과 유명 작가를 광주에 소개해온 우제길 미술관이 프랑스 현지에서 판화교류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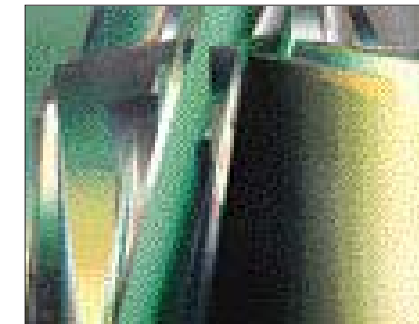
이번 교류전은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 목판화를 동양의 대표적인 판화로 인식하고 있는 프랑스 미술계에 한국의 판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제길미술관은 6~15일까지 프랑스 파리 인근 루앙(ROUEN)의 에스파스 피에르 브르코우아 전시장에서 '포레라시옹(COREELATION)'전을 갖는다.

프랑스 참여작가는 프랑스 생느 마리팀 지방에서 활동 중인 파스칼 지라르, 티비티 릭 등 5명. 광주에서는 우제길, 김미모, 강행복, 노정숙, 김상연씨 등이 참가한다.

전시와 워크숍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양 지역 판화 교류와 제작방식을 시연하는 강연회와 워크숍 등이 열린다.

이번 판화 교류전은 우제길 미술관이 지난해 개최한 국제판화워크숍에 참석한 프랑스 판화가 파스칼 지라르가 가교역할을 해 이뤄지게 됐다.



우제길 작 'Light 2007'

우제길씨는 "동양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판화라는 매체를 통해 한국인의 감성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224-660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성그룹 모던앙상블

8번째 정기연주회

오늘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실내악 그룹인 모던앙상블 8번째 정기연주회가 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지역 출신 작곡가 박지

현씨가 모던 앙상블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5중주곡 '오르페우스'를 비롯해 플루트의 아름다운 음색이 인상적인 고베의 '플루트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수채화', 서정적인 멜로디의 곡으로 '위대한 예술가를 위하여'라는 부제가 붙은 아렌스키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 D장조 작품번호 32'다.

천현주(피아노), 박지혜(플루트), 석민정(첼로), 석수연(바이올린), 양수현(클라리넷)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227-7442.

/김미선기자 mekim@kwangju.co.kr



Happy Time 영화안내 banner with movie posters and text.

메가박스 Megabox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블랙달리아' and '공녀'.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블랙달리아' and '공녀'.

컬럼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히어로' and '공녀'.

씨너스전대 Cines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히어로' and '공녀'.

무등극장 Mudeung극장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히어로' and '공녀'.

제일시네마 Jeil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s like '블랙달리아' and '공녀'.